

【 해외금융뉴스: 유럽 】

유로지역내 감독시스템 강화 상정

- EU 태스크포스(High Level Group on Financial Supervision)는 유로지역은 임시 변통의 지역적인 감독체계를 불식시키고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조율하는 한편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감시할 새로운 조직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.
 - 동 태스크포스는 금융정책에 공조하며, 금융리스크를 경고하기 위해서는 유로 중앙은행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함.
 - 또한 개별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각각의 감독자를 조정해주는 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함.
 - 그러나 유럽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단일 금융감독기구 설립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배제하였다고 밝힘.

- 동 태스크포스의 보고서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및 금융안정성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기 위해 유로 금융시스템 리스크 위원회(European Systemic Risk Council) 설치를 권고함.
 - 새로운 감독기구는 각국 감독자에 대한 조정 기능을 담당할 뿐 매일 매일의 감독은 각국에게 위임한다고 밝힘.
 - 새로운 감독기구는 각국의 감독자를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존의 3개 위원회로부터 발의하여 설립될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권한을 확대해주어야 한다고 밝힘.
 - 예를 들어 법적으로 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과 유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감독기구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함.

- EU는 동 태스크포스가 유로지역의 사고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4월의 G20 정상회담에 앞선 유럽 정상회담에 동 내용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힘.
 - 유로지역의 주요 은행그룹과 보험그룹들은 태스크포스의 제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, 프랑스은행연합회도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 밝힘.
 - 그러나 영국내의 금융시장은 유로지역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새로운 감독기구 신설은 검증받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을 제기함.
 - 감독권 이양방법에 대한 합의 도출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는데 시간 소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함.

(Financial Times 2/25)